

## NC, 롯데에 9점차 뒤집고도 아쉬운 무승부

등록 2021.05.29 17:42:38



[서울=뉴스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1회초 NC 양의지가 2사 1루 상황에서 선제 2점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2021.05.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스시스] 문성대 기자 = NC 다이노스가 롯데 자이언츠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NC는 2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10-1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NC 양의지는 8-9로 끌려가던 9회초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로 시즌 11호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역전승을 눈앞에 뒀지만, 9회말 1점을 내줘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태군은 8회 추격의 솔로포(시즌 3호)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1타점 3득점으로 무승부에 기여했다.

NC 선발 송명기는 5이닝 13피안타 9실점으로 최악의 난조를 보였지만, 타선 덕에 패전은 면했다.

NC는 시즌 22승 1무 21패를 기록했다.

롯데는 9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선발 댄 스트레일리는 5%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후속 투수들이 못매를 맞아 아쉬움을 남겼다.

롯데는 9회말 김준태의 1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간신히 패배는 면했다.

15승 1무 27패를 기록한 롯데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광주=뉴스시스]류형근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3회초 무사 만루에서 롯데 7번타자 김준태가 볼넷 출루하고 있다. 2021.04.13. hgryu77@newsis.com  
초반 분위기는 롯데가 압도했다.

롯데는 1회말 민병현, 추재현, 안치홍의 2루타에 손아섭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3-0을 만들었다.

3회 추재현의 내야안타와 전준우이 2루타로 1점을 추가한 롯데는 안치홍의 적시타에 힘입어 5-0으로 달아났다.

롯데는 4회 3점, 5회 1점을 더해 9-0으로 달아나 손쉽게 경기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러나 0-9로 뒤진 상황에서 NC의 반격이 시작됐다.

6회말 김태군과 박민우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찬스를 잡은 NC는 이명기의 2루타와 애런 알테어의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만회한 후 7회 3안타와 상대 실책 등으로 4점을 뽑아 롯데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NC는 8회 김태군의 솔로 홈런으로 8-9로 따라붙었다.

분위기를 바꾼 NC는 9회 양의지의 극적인 2점 아치로 승부를 10-9로 뒤집었다.

NC는 9회말 마무리 원종현을 올렸지만,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롯데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나승엽의 안타와 한동희의 볼넷으로 찬스를 잡은 후 김준태의 적시타로 10-10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덕슨 마차도가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나 무승부로 끝이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